



사노피, 한국 내 신약 발굴 리서치 전담 최주현 박사 영입

- 국내외 산학 경험 두루 갖춘 인물 영입 통해 R&D 현장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리더십 강화 기대
- 사노피,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신약 개발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데 보다 박차를 가할 예정

2013년 6월 5일, 서울 –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는 한국 내 혁신적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R&D 투자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최주현 박사를 한국 R&D 담당이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.

신임 최주현 박사는 앞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연구 프로젝트 및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총괄한다. 이를 위해, 대전에 위치한 사노피 본사 소속의 현지 R&D 사무소를 기점으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바이오 벤처, 제약사 및 학계와의 파트너십 추진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한 R&D 전략 기획을 책임질 예정이다.

사노피는 한국 등 아태지역에서 유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을 가속화 하고자, 국내에서 본사 소속의 R&D 전문가 총 4 명을 영입, 신약 연구 및 임상 연구 등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.

이번 최주현 박사의 영입을 통해, 사노피는 자사의 글로벌 R&D 네트워크 안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, 국내에서 사노피의 오픈 이노베이션 리더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최주현 박사는 고려대학교에서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, 카이스트와 마운트싸이나이 의과대학(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)에서 박사후연구(Post-doctoral studies)를 수행했다. 사노피에 합류하기 전, 최 박사는 LG 생명과학에서 생물/면역 팀(Biology/Immunology team)을 총괄했다.

최주현 박사는 “사노피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했다. 사노피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R&D 현장의 네트워크 및 국내외 R&D 학계와 현장의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‘미래의 건강을 설계’하고자 하는 사노피의 R&D 사명을 달성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
사노피는 지난 4 월에 국내 바이오, 제약산업 R&D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, 선진 중개연구소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다각적인 협력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포괄적 연구 협약(MRA)을 체결했다. 또한 2012년 유전자기술 전문 기업인 바이오니아 및 합성신약 개발 전문 벤처 기업인 레고켄 바이오사이언스, 항체신약 개발 기업인 파맵신 및 ANRT와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에서도 정부, 학계, 산업계와 활발한 파트너십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구현하고 있다.

###